

# 논항구조와 국어 '자기'의 결속 \*

박 효 명  
(전남대학교)

Park, Hyomyong. 1999. Argument Structure and the Binding of Korean 'chaki'. *Linguistics* 7-3, 61-86. This paper attempts to describe the binding phenomena of Korean 'chaki' in the framework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aki' represents its own syntactic behaviors. One such behavior is that it has a referentially particular property of subject orientation and non-subject orientation, which are proven to be an argument subject orientation. The other characteristic is that, unlike other kinds of anaphor found in many languages, 'chaki' represents a long distance binding. Two constraints are provided for describing these behaviors: a binding constraint on 'chaki', and an Argument Union, which is an extension of Argument Structure(ARG-ST) for the locus of binding. (Chonnam Nat'l University)

## 1. 서론

이 글은 국어 조용사 '자기'가 가진 통사-의미적 속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핵어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틀 안에서 그 통사적 결속 현상을 기술한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주어 지향성과 비주어 지향성이라는 지시적 속성을 분석하여 이 두 가지 속성이 사실은 논항주어(argument subject) 지향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 사실은 '자기'의 결속 제약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결속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자질인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ARG-ST)에 관한 현재의 이론은 이 제약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 2. 핵어문법의 결속이론

결속이론은 본래 구성성분의 통사적 결합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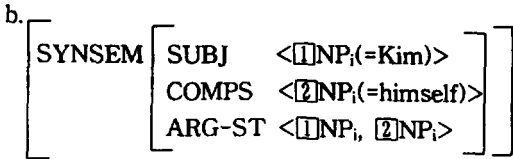
\* 이 논문은 1998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나라 적형문 내에서 지시적으로 의존관계에 있는 명사류들의 관계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이들의 적절한 의미해석을 얻어내기 위하여 고안된 문법이론의 한 모듈(module)이다.

Pollard & Sag(1994)에서 보인 초기의 결속이론은 하위범주화 자질(SUBCAT)의 사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Manning(1995, 1997a, 1997b)와 Manning & Sag(1998)은 문장 내에 들어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질인 항가자질(valence feature)과 결속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자질인 ARG-ST를 분리하고 있다.

영어의 재귀대명사를 포함하는 (1a)를 결속과 관련된 자질구조만을 보이면 (1b)와 같은 자질구조를 가진다.

(1) a. Kim<sub>i</sub> loves himself<sub>i</sub>.



다음 (2)의 논항구현 원리(Argument Realization Principle, (ARP))는 (1b)와 같은 자질구조를 보장한다.

(2) 논항구현 원리

A word's value for ARG-ST is  $\boxed{a} \oplus \boxed{b}$ , where  $\boxed{a}$  is its value for SPR and  $\boxed{b}$  is its value for COMPS. (Sag & Wasow, 1999:151)

자질 SPR은 사실상 주어이므로 (1b)에서 SUBJ라는 자질로 표기된다. 이 원리에 따라 주어와 보어는 어휘핵어의 논항으로 구현된다. (1a)의 어휘핵어는 다음과 같은 논항구조를 가진다.

(3) loves: [ARG-ST <NP<sub>i</sub>(=Kim), NP<sub>i</sub>(=himself)>]

어휘핵어 *loves*는 [1]NP<sub>i</sub>와 [2]NP<sub>i</sub>를 공동논항(coargument)으로 가진다. 이러한 어휘핵어의 ARG-ST의 값은 표면적 구조가 달라지더라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어의 능동문과 수동문은 표면적인 구조에서 주어와 달리한다.

- (4) a. Kim loves Sandy.
- b. Sandy is loved by Kim.

(4a)의 능동문의 주어는 Kim인 반면에 (4b)의 수동문의 주어는 Sandy이다. 이들이 비록 능동문과 수동문의 표면적 구조에서 각기 주어로 쓰이지만 Kim의 의미역할(thematic role)은 '사랑하는 자'이며, Sandy는 '사랑받는 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문장의 구조가 바뀌더라도 그 의미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loves와 loved라는 두 어휘핵어의 ARG-ST는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5) a. loves: [ARG-ST <NP(=Kim), NP(=Sandy)>]
- b. loved: [ARG-ST <NP(=Kim), NP(=Sandy)>]

(5b)의 ARG-ST에서 NP(=Kim)은 실제로 표면적인 구조에서 주어가 아니지만 그 의미역할은 변함없이 능동문의 주어가 놓이는 최초의 자리에 위치하는 요소이다. 이를 Manning & Sag(1998)은 논항주어(argument subject)라 부른다. 이러한 논항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Manning & Sag(1998: 66)은 다음과 같은 영어의 결속이론을 제시한다.

- (6) 결속 이론
- a. A locally a-commanded anaphor must be locally a-bound.
- b. A personal pronoun must be locally a-free.
- c. A nonpronoun must be a-free.

(6a)에 따르면 국부적으로 논항통어된 조용사(anaphor)는 ARG-ST에서 한 논항을 통어하는 공동논항이 있으면 이 요소와 국부적으로 묶이게 된다. 여기에서 국부적이라 함은 어휘핵어의 최대투사가 이루어지는 구성성분 즉 구절기호를 뜻한다. 바꾸어 말해서 핵어문법의 결속이론은 어휘핵어의 최대투사인 절(clause)의 경계 안에서 공동의 논항이 공지표(coindex)된

다는 것이다.

또한 Sag & Wasow(1999: 153, 213)이 제시한 조용사 일치의 원리 (Anaphoric Agreement Principle (AAP))는 선행사와 재귀대명사가 성, 수와 인칭에 있어서 일치하는 현상을 보장한다.

### (7) 조용사 일치의 원리

Coindexed elements agree.

이 원리는 공지표된 선행사와 재귀사가 자질 AGR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는 (1a)의 공지표된  $Kim_i$  과  $himself_i$  가 인칭과 수에 있어서 일치하는 현상을 보장한다. 그러나 \* $They_i$  hate  $himself_i$ 에서 지표  $i$ 로 나타낸 성분이 AGR을 공유하지 못하므로 이들의 결속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설명하게 된다.

### 3. '자기'의 통사적 제약

국어의 '자기'가 재귀대명사와 인칭대명사의 두 가지 통사적 기능을 가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의 예에서 '자기'와 그에 대응하는 인칭대명사가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 (8) a. 내가 내/자기; 이름도 못쓰는 바보는 아니다. (1인칭 단수)  
 b. 너;는 너/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2인칭 단수)  
 c. 영수;는 그<sub>i</sub>/자기;<sub>i</sub>의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3인칭 단수)

'자기'를 단순히 재귀대명사로 보는 견해는 주어가 행위자(agent)로서 동사를 통하여 나타내는 그 행위가 다시 주어인 행위자에게 되돌아오는 속성만을 반영한 것이다.

- (9) a. 영수;는 자기;를 미워한다.  
 b. 영수;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9a)의 어휘핵어 '미워하다'를 보면 주어의 행위는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어로 돌아오는 전형적인 재귀성(reflexivity)을

가진다. 이처럼 주어의 행위가 되돌아오는 목적어의 자리에 위치하는 '자기'는 분명히 재귀성을 가진다. (9b)의 주어인 영수의 행위, 즉 '치며 후회하다'는 다시 주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자기의 가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는 재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복합문에 들어있는 '자기'는 영어의 재귀대명사와 다른 통사적 양상을 보인다. (10a)에서 '자기'는 표면적 구조에서 선행하는 두 개의 지시적 NP, 즉 상위절(matrix clause)의 주어 또는 하위절(embedded clause)의 주어와 공지시(coreferentiality) 관계에 놓이고 있다.

(10) a. 철수<sub>i</sub>는 영수<sub>j</sub>가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b. Chulsoo<sub>i</sub> believes that Youngsoo<sub>j</sub> hates himself<sub>i/j</sub>.

c. Chulsoo<sub>i</sub> believes that Youngsoo<sub>j</sub> hates him<sub>i</sub>.

'자기'가 하위절의 주어인 '영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절의 경계 내에서 선행사인 '영수'와 묶이게 되고, 행위의 재귀성이 확인되므로 영어 재귀대명사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이와 다르게 '자기'가 상위절의 주어인 '철수'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행위의 재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0a)에서 인칭대명사인 '그'는 (10c)의 him<sub>i</sub>처럼 '자기'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자기'는 상위절의 주어인 명사구를 대신하는 인칭대명사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는 극히 제한적인 통사적 환경에서 재귀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칭대명사의 일부인 것이다. 이러한 '자기'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여 재귀대명사 혹은 인칭대명사라는 용어 대신에 '자기'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sup>1)</sup>

(10a)에서 '자기'는 주어와 공지시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자기'의 주어 지향성(subject orientation)이라 한다. (11)은 표면적 구조에서 '자기'가 주

1) 일본어의 '自分' (Manning, Sag & Iida 1998)과 중국어의 '自己'도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Pollard & Xue, 1998) 이러한 증거들은 명사류(nominal)를 과거와 다르게 분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Pollard & Xue(1998, ms)는 명사류 가운데 대명사(pronoun)를 일반적인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 p-pronoun)와 종래의 재귀대명사를 지시의존적 대명사(referentially dependent pronoun, r-pronoun)로 분류하여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영어의 재귀대명사와 '자기'는 지시의존적 대명사이면서도 각기 통사적 행위를 달리하는 성분인 것이다.

어 혹은 목적어와 공지시의 관계에 서게 되는 것처럼 '자기'는 언제나 주어 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11) a. 영수<sub>i</sub>는 철수<sub>j</sub>에게 자기<sub>i,j</sub>의 사진을 주었다.  
 b. 어머니<sub>i</sub>는 철수<sub>j</sub>를 자기<sub>i,j</sub>의 방에 자게 한다.  
 c. [자기<sub>i</sub>의 아이]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김씨<sub>j</sub>를 기쁘게 하였다.

이처럼 보어 지향적으로 '자기'가 묶이는 현상을 '자기'의 비주어 지향성 (non-subject orientation)이라 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자기'의 주어/비주어 지향성을 자세하게 검토 분석하여 통사적 제약을 제시할 것이다.

### 3.1 '자기'의 주어 지향성

'자기'는 단문이나 복합문의 경계 안에서 상위절이나 하위절을 구분하지 않고 주어와 동일지시 관계를 가진다.

- (12) a. 미자<sub>i</sub>는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  
 b. 미자<sub>i</sub>는 자기<sub>i</sub>가 영리한 것이 좋다.  
 c. 철호<sub>i</sub>는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만나러 오자 몹시 기뻐다.  
 d. 철호<sub>i</sub>가 영호<sub>j</sub>를 자기<sub>i,j</sub>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다.

(12a)는 한 문장인 절의 경계 안에서 주어와 '자기'가 동일지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12b)-(12d)는 비록 절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지만 '자기'는 상위절의 주어와 동일지시 관계를 가진다. 다음 예는 조금 긴 문장이지만 역시 주어와 동일지시 관계에 놓이는 것을 보여준다.

- (13) (누구<sub>i</sub>가) 걸인<sub>i</sub>을 근본적으로 그 걸식상태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sub>i</sub>에게 고통을 주지않는 한도 안에서 분전 처리를 급여하는 것은 걸인 생활을 연장하여 줌만이 아니라 ... 인간적인 모욕일 것이다. (김 광 회(1997:70))

( ) 안의 주어, 즉 전체 문장의 주어인 (누가<sub>i</sub>)는 필자가 가필한 것이다. 국어는 주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13)의 '자기'

는 ( ) 안의 성분이 없으면 화맥상에서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어떤 명사구를 지시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13)처럼 ( ) 안에 주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면 '자기'는 이 주어와 분명한 지시적 의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자기'가 지시적으로 주어지향적이라는 사실을 더 한층 강화해주는 것이다.

이제 '표면적 구조에서 자기'의 주어 지향성이 ARG-ST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자. (14)는 어휘핵어가 두 개의 논항을 가지며, (15)은 세 개의 논항을 가진 단순한 문장이다.

(14) a. 미자<sub>i</sub>는 자기<sub>j</sub>를 사랑한다.

b. 사랑하다: [ARG-ST <NP<sub>i</sub>(미자), NP<sub>j</sub>(자기)>]

(15) a. 영수<sub>i</sub>는 철수<sub>j</sub>에게 자기<sub>k</sub>를 소개하였다.

b. 소개하다: [ARG-ST <NP<sub>i</sub>(영수), NP(철수), NP<sub>j</sub>(자기)>]

(14a)의 주어인 NP는 ARG-ST의 최초의 요소로 나타나고, (15a)의 주어인 NP도 역시 ARG-ST의 최초의 요소로 나타난다. 이 최초의 요소는 논항주어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자기'의 주어 지향성은 사실상 표면적 구조의 주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항주어와 지시적 의존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의 논항주어 지향성을 결속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14)와 (15)에 나타난 결속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6) '자기'의 결속 제약

'자기'는 어휘핵어의 논항주어와 공지표된다.

하위절과 상위절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복합문(complex sentence)에서 '자기'는 (14)와 (15)와 다른 통사적 행위를 보여준다. [ ] 안의 성분은 하위절로서 상위절의 목적어이다.

(17) a. 미자<sub>i</sub>는 [철수<sub>j</sub>가 자기<sub>j</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b. 미자<sub>i</sub>는 [철수<sub>j</sub>가 자기<sub>j</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c. 미자<sub>i</sub>는 [자기<sub>j</sub>가 철수<sub>j</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17)은 다음과 같은 ARG-ST의 값을 가진다. 표기의 간소화를 위하여 상위절의 어휘핵어가 가진 ARG-ST를 먼저 쓰고, 하위절의 ARG-ST는 줄을 바꾸어 들여 넣어서 표기한다.

(18) (17)의 ARG-ST

- a. 밑다: [ARG-ST <NP<sub>i</sub>(미자), S>]  
 미워하다:[ARG-ST <NP<sub>j</sub>(철수), NP<sub>i</sub>(자기)>]
- b. 밑다: [ARG-ST <NP<sub>i</sub>(미자), S>]  
 미워하다:[ARG-ST <NP<sub>j</sub>(철수), NP<sub>i</sub>(자기)>]
- c. 밑다: [ARG-ST <NP<sub>i</sub>(미자), S>]  
 미워하다:[ARG-ST <NP<sub>i</sub>(자기), NP<sub>j</sub>(철수)>]

(17a)는 '자기'가 하위절의 주어와 지시의존적이므로 (16)의 결속 제약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휘핵어의 최대투사의 범위인 절의 경계 안에서 결속이 이루어지는 국부적 결속(local binding)이므로 (16)의 제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7b)-(17c)는 '자기'의 결속영역(binding domain)이 절의 경계를 넘어서는 원거리 결속(long distance binding)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기'가 한 문장의 경계 내에서 절의 경계를 넘어서서 결속이 이루어지면 (16)의 제약을 원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16)의 제약이 하나의 어휘핵어가 가진 ARG-ST 값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속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6)의 제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를 제시하는 것이다.

AAP는 국부적 결속은 물론 원거리 결속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Pollard & Xue(1998)는 이를 비일치 차단(nonagreement blocking)이라 부른다.

- (19) a. 미자는 [친구들<sub>i</sub>이 자기들<sub>j/서</sub>을 미워한다고] 믿는다.  
 b. 친구들<sub>j</sub>은 [철수<sub>i</sub>가 자기<sub>j/서</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c. 미자는 [친구들<sub>i</sub>이 자기<sub>j/서</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d. 친구들<sub>j</sub>은 [철수<sub>i</sub>가 자기들<sub>j</sub>을 미워한다고] 믿는다.

(19a)-(19d)는 '자기/자기들'은 일치하는 논항주어와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19a)-(19b)는 일치하는 논항주어가 하위절의 주어이므로 '자기'는 원거리 결속이 아닌 국부적 결속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19c)-(19d)는 '자기/자기들'이 하위절의 논항주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위절의 주어와 묶이는 원거리 결속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AAP가 언제나 일치하는 논항주어와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역할에 그치게 되므로 원거리 결속과 국부적 결속을 구분하여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17)은 '미자', '철수'와 '자기'라는 세 개의 논항을 가진다. 이들은 모두 [AGR [[PER 3rd], [NUM sing]]]라는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다. 여기에 AAP가 적용되더라도 '자기'의 AGR의 값은 '미자'와 '철수'라는 논항주어와 동일하므로 AAP는 어느 하나의 논항과 묶이어야 하는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자기'는 국부적 결속과 원거리 결속이 가능하다.

이처럼 '자기'로 하여금 두 개(혹은 그 이상)의 지시적 NP 가운데 어느 NP와 공지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화자의 발화 의도에 의존하게 된다. 예컨대 발화 과정에서 화자가 '자기'는 '미자'와 '철수' 가운데 어느 하나라는 것을 미리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발화하게 된다. 화자의 의도는 두 개의 논항 가운데 어느 하나와 공지시 관계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공지시 관계는 화자의 의도와 같은 화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통사적 결속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원거리 결속이나 국부적 결속을 불문하고 '자기'는 언제나 논항주어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자기'는 언제나 논항주어와 국부적 혹은 원거리 결속이 이루어진다. 국부적 결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미 제시한 '자기'의 결속 제약과 조용사 일치의 원리에 의하여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합문에서 원거리 결속이 이루어지면 상위절과 하위절의 어휘핵어가 각각 ARG-ST 값을 가지므로 두 개의 ARG-ST의 최초의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을 논항주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난다. 다음 4절의 논항의 합(argument union)을 다루는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3.2 자기의 비주어 지향성

문장의 표면적 구조에서 '자기'는 목적어로 쓰이는 대격명사구(accusative NP) 또는 여격명사구(dative NP)와 공지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20a)는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기'의 주어지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20b)는 '자기'가 목적어인 대격명사구와 공지시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 (20) a. 어머니<sub>i</sub>는 철수<sub>j</sub>가 자기<sub>i</sub>의 방에 자게 한다.  
 b. 어머니<sub>i</sub>는 철수<sub>j</sub>를 자기<sub>i</sub>의 방에 자게 한다.

한 문장 내에서 '자기'가 보여주는 두 가지 결속 가능성을 가진 (20)는 구조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i) (20)은 '-게 하다'라는 우언적 사역형(periphrastic causative form)이 들어있는 사역구문(causative construction)이다. ii) 수의적 성분인 '자기<sub>i</sub>의 방에'는 상위절이나 하위절의 수식어구로 쓰일 수 있는 요소이며, 그 내부에 들어있는 '자기'가 구분되는 지시적 명사구와 결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수의적 성분의 결속 현상은 ARG-ST의 값과의 관계를 다루는 4절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국어의 사역구문은 Bratt(1996)에 따르면 어휘핵어는 주어인 논항과 목적어인 문장을 논항으로 가진다. 수의적 성분을 제외한 (20)의 논항구조는 다음과 같다.

- (21) -게 하다: [ARG-ST <NP(어머니<sub>i</sub>)>, S(철수<sub>j</sub>가 자다)>]  
 자다: [ARG-ST <NP(철수<sub>j</sub>)>]

논항 S 안의 NP '철수'는 표면적 구조에서 형태상으로 '-를'이 붙은 대격명사구이다. 그러나 이 NP는 의미상으로 동사 '자다'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어휘핵어 '-게 하다'의 주어인 '어머니'가 ARG-ST 상에서 최초요소(first element)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논항을 가진 '자다'의 ARG-ST의 값에서 주어가 통상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지킨다. 이 NP '철수'는 Manning & Sag(1998)의 논항주어(argument subject)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휘적 사역동사(lexical causative)를 포함하는 구문(22a)과 사역의 의미를 가진 구문(22b)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22) a. 수사관<sub>i</sub>은 그 소녀<sub>j</sub>를 자기<sub>i</sub>의 부모에게 넘겼다.  
 b. 의사<sub>i</sub>는 환자<sub>j</sub>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sub>i</sub>의 병을 알도록 유도한다.

어휘적 사역동사 '넘기다'를 포함한 (22a)의 NP '소녀를'은 표면적 구조에서 역시 목적어이다. 그러나 이 NP는 의미상으로 보면 넘겨지는 대상으로서 분명히 논항주어이다. 그리고 (22b)의 '환자'는 직접목적어에 붙는 것과 다른 종류의 후치사(postposition)를 가진 목적어이지만 역시 동사 '알다'의 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는 논항주어이다.

극히 제한된 일부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타동사도 표면적 구조에서 형태상으로 목적어를 취하지만 이 목적어는 의미상으로 논항주어의 역할을 한다.

- (23) a. 철수<sub>i</sub>가 영호<sub>j</sub>를 자기<sub>i</sub>가 광주에 있을 때 만났다.  
 b. ?철수<sub>i</sub>가 영호<sub>j</sub>를 자기<sub>i</sub>가 광주에 있을 때 만났다.

어휘핵어 '만나다'는 행위자인 주어와 수동자(patient)인 목적어를 논항으로 가진다. '자기'와 논항주어인 '철수'가 공지시 관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목적어인 '영호'와 공지시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상황을 수사적으로 묘사하거나, 어느 부분을 강조(intensification)하거나 또는 대조(contrastiveness)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화용적 요인이 게재되는 경우에는 '자기'는 목적어와 묶이게 된다. 그러나 '만나다'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사슬동사(serial verb)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

- (24) a. 철수<sub>i</sub>는 영호<sub>j</sub>가 자기<sub>i</sub>를 만나러 오자 기뻐하였다.  
 b. 기뻐하다: [ARG-ST <NP<sub>i</sub>(철수),  
 S(영호<sub>j</sub>가 자기<sub>i</sub>를 만나러 오다)>]  
 (i) 만나러 오다: [ARG-ST <NP<sub>j</sub>(영호), NP<sub>i</sub>(철수)>]  
 (ii) 만나러 오다: [ARG-ST <NP<sub>j</sub>(영호), NP<sub>j</sub>(자기)>]

(24a)를 논항구조로 나타낸 (24b)의 (i)은 '영호'가 '철수'를 만나러 오는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하지만, (ii)는 '영호'가 (다른 곳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오는 것이 되므로 이는 거의 불가능한 해석이다. '만나다'와 같은 타동사의 경우에 '자기'가 목적어 지향적으로 묶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3b)에서 ‘자기’는 목적어와 묶이는 것이 아니라 (23a)와 같이 논항인 주어와 묶이는 해석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표면적 구조에서 목적어와 묶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실제로 의미상으로 볼 때 ‘자기’는 흔히 의미상의 주어(understood subject) 혹은 논리적 주어(logical subject)라고 부르는 논항주어와 묶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의 심리형용사를 포함하는 중주어 구문에서도 드러난다.

(25) 심리형용사 구문

- a.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찾아온 것이 철수<sub>i</sub>(는, 예게는) 고마웠다.
- b.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철수<sub>i</sub>(는, 예게는) 분명하였다.

후치사 {는, 예게는}과 함께 쓰인 지시적 명사구는 화용적인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25)의 ‘철수’는 행위자인 점에서 논항주어의 성격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25a)에서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찾아온’만으로 ‘자기’의 공지시 관계를 찾는 것은 무리이다. ‘찾아오다’는 앞에서 언급한 ‘만나러 오다’와 같은 사술동사로서 반드시 비동일(non-identical) 지시적인 논항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5a)에서 ‘영미’와 ‘자기’의 동일지시 관계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영미’가 아닌 다른 대상물, 즉 ‘철수’를 지시하여야 하므로 그와 묶이는 해석만이 가능한 것이다.

(25b)에서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사랑하고 있는’에서 ‘사랑하다’는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거나 혹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 (25b)의 ‘자기’는 ‘영미’ 혹은 ‘철수’에게 묶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므로 역시 그에 따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고마웠다’는 ‘고마워하다’라는 타동사로부터 수동화 어휘규칙(passive lexical rule)에 의하여 도출된 심리형용사로 볼 수 있다. 혹은 어휘기호의 다항전수 위계(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에서 상위유형(supertype)인 ‘고마워하다’의 하위유형(subtype)의 심리형용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5a)는 (26a)-(26b)와 동일한 진리조건적인 의미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6) a. 철수<sub>i</sub>는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찾아온 것을 고마워했다.

- b. 철수<sub>i</sub>는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찾아온 것이 고마웠다.<sup>2)</sup>
- c. 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찾아온 것이 철수<sub>i</sub>(에게는, 는) 고마웠다.

이러한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26)은 다음과 같은 ARG-ST를 가진다.

(27) 고마워했다:

[ARG-ST <NP<sub>i</sub>(철수), NP[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찾아온 것]>]

고마웠다:

[ARG-ST <NP<sub>i</sub>(철수), NP[영미<sub>j</sub>가 자기<sub>i</sub>를 찾아온 것]>]

찾아오다: [ARG-ST <NP<sub>j</sub>(영미), NP<sub>i</sub>(철수=자기)>]

'고마워하다'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진다. 수동화한 어휘핵어는 이미 앞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능동문의 어휘핵어가 가진 논항의 수효와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어휘핵어 '고마웠다'는 '고마워하다'와 동일한 ARG-ST를 가진다. 사물동사 '찾아오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미'와 '자기'라는 두 개의 논항이 동일지시 관계에 있을 수 없으므로 [ARG-ST <NP<sub>j</sub>(영미), NP<sub>i</sub>(철수=자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어휘핵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27)이 나타내는 ARG-ST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자기'는 논항주어와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표면적인 구조에서 타동사 혹은 사역동사의 목적어인 대격명사구가 사실상 논항구조에서 최초의 위치를 차지하는 논항주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자기'가 목적어인 여격명사구와 동일지시 관계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28)에서 '자기'는 주어인 논항과 공지시가 가능함은 물론 대격명사구와도 동일지시 관계에 있다.

(28) a. 영수<sub>i</sub>는 철수<sub>j</sub>에게 자기<sub>i</sub>의 사진을 주었다.

b. 영수<sub>i</sub>는 철수<sub>j</sub>에게 자기<sub>j</sub>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2) (26a)의 '... 찾아온 것을 고마워했다.'와 (26b) '... 찾아온 것이 고마웠다'의 차이는 '고마워하다'가 타동사이므로 목적어에 '-을'이 붙은 것이며, '고마웠다'는 심리형용사로서 결합하는 바로 앞의 성분이 주어이므로 '-이'가 붙은 것이다.

(28a)는 보통의 화맥에서는 ‘영수가 영수의 사진을 철수에게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자기’는 이 경우에 논항주어와 공지시 관계에 선다. 그러나 화자의 의도가 ‘철수의 사진을 영수가 철수에게 주다’는 의미로 (28a)를 발화한 경우에는 목적어인 여격명사구와 동일지시 관계에 선다. (28b)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격명사구와 동일지시 관계에 선다. 이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는 ‘자기’의 공지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점에서 ‘자기’가 논항주어와 동일지시 관계에 서지 않는 경우는 화용적 요인에 의하여 지시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화용론적 접근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통사적 결속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는 가끔 앞에 오는 선행사가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대격목적어와 동일지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29) a. [자기<sub>i</sub>의 동생]이 김씨<sub>j</sub>를 때렸다.

b. [자기<sub>i</sub>의 아이]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김씨<sub>j</sub>를 기쁘게 하였다.

(29)의 ‘자기’는 선행하는 주어가 아니라 표면적 구조에서 후행하는 대격명사구(accusative NP)와 지시적 의존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후방조용(cataphora)의 일종인 것이다. 이는 ‘자기’와 공지시 관계에 있는 지시적 명사구가 선행하는 논항주어가 아니므로 통사적 결속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인 것이다.

국어는 화맥상으로 용인되면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매우 짙다. (30)에서 ( )안의 ‘김교수’가 생략된 주어인 것으로 가정하자. (30a)는 앞에서 다룬 몇 가지 구문과 마찬가지로 주어 혹은 목적어와 결속이 이루어진다.

(30) 주어 생략 구문

- a. (김 교수<sub>i</sub>는) 자기<sub>i,j</sub>의 부모를 모르는 학생<sub>j</sub>을 만났다.
- b. (김 교수<sub>i</sub>는) 자기들<sub>i,j</sub>의 부모를 모르는 학생들<sub>j</sub>을 만났다.
- c. (김 교수<sub>i</sub>는) 자기<sub>i,j</sub>의 부모를 모르는 학생들<sub>j</sub>을 만났다.

(30b)는 수에 관한 정보가 문법적으로 크게 변별력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나타내는 “자기들”이 그와 일치하는 하위절의 목적

어와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30c)는 (30b)의 역이다. (30a)-(30b)는 하위 절의 목적어와 결속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므로 역시 이들의 논항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술의 편의상 생략된 주어도 논항구조에서 함께 나타 내기로 한다.

(31) (30a)-(30c)의 논항구조

- a. 만나다: [ARG-ST <NP<sub>i</sub>(김 교수),  
NP(자기<sub>i</sub>의 부모를 모르는 학생<sub>j</sub>)>]  
모르다: [ARG-ST <NP<sub>j</sub>(학생), NP(자기<sub>i</sub>의 부모)>]
- b. 만나다: [ARG-ST <NP<sub>i</sub>(김 교수),  
NP(자기들<sub>j</sub>의 부모를 모르는 학생들<sub>j</sub>)>]  
모르다: [ARG-ST <NP<sub>j</sub>(학생들) NP(자기들<sub>j</sub>의 부모)>]
- c. 만나다: [ARG-ST <NP<sub>i</sub>(김 교수),  
NP(자기<sub>i</sub>의 부모를 모르는 학생들<sub>j</sub>)>]  
모르다: [ARG-ST <NP<sub>j</sub>(학생들) NP(자기<sub>i</sub>의 부모)>]

이 세 가지 논항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자기들'은 전체적인 논항구조를 고려할 때 상위절이나 하위절에 위치하여 '자기'와 일치하는 논항주어와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의 논의를 요약하면 '자기'는 화용적 요인에 의하여 여격 명사구와 공지사 관계를 가진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대격목적어를 비롯한 몇 가지 유형의 표면적 구조에서 보여주는 소위 '자기'의 비주어 지향성은 사실상 논항주어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용적인 요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자기'의 통사적인 결속제한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4. 논항구조의 합

지금까지 논의를 거치는 동안 제기된 문제는 두 가지이다. i) '자기'의 결속 제약은 하나의 어휘핵어가 가진 ARG-ST의 값에 부과되는 제약이므로 '자기'의 국부적 결속 현상만을 기술할 수 있다. ii) 수의적 성분은 ARP에 의하여 어휘핵어의 논항으로 구현되지 않으므로 수의적 성분 내에 들어

있는 '자기'가 논항주어와 묶이는 현상을 기술할 수 없게 된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순서를 바꾸어서 기술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제 ARG-ST와 관련하여 수의적 성분의 문법적 지위를 살펴보자. 앞 절의 (20)과 (23)을 반복한다.

- (32) a. 어머니<sub>i</sub>는 철수<sub>j</sub>가/를 [자기<sub>i/j</sub>의 방에] 자게 한다.  
 b. 철수<sub>j</sub>가 영호<sub>k</sub>를 [자기<sub>j</sub>가 광주에 있을 때] 만났다.

[ ] 안의 요소들은 각각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로서 수의적 성분이다. ARP에 따르면 이들은 어휘핵어가 하위범주화하는 필수적 성분이 아니므로 ARG-ST의 값으로 구현될 수 없다. Hukari & Levine(1996)은 수의적 성분인 영어의 부사류에서도 어휘핵어의 필수적 성분인 다른 항가 범주(valence category)와 마찬가지로 추출(extraction)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Prezepiorkowsky(1997a, 1997b, 1998)는 폴란드어의 수의적 성분에 격을 부여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의 격을 다룬 Maling(1989)과 그 밖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부사류에 격이 부여된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논항으로 구현되는 모든 NP가 격을 가진다는 사실과 논항인 항가범주가 추출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성분들이 비록 수의적 성분이라 하더라도 논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문법적 범주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33)은 수의적 성분 내에 재귀대명사 *itself*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의 어휘핵어인 전치사들은 Sag & Wasow (1999: 156-160)의 P-OBJ의 전치사도 아니다.

- (33) a. The door<sub>i</sub> opens *of itself*.  
 b. The nature<sub>i</sub> is changing *in itself*.  
 c. John<sub>i</sub> tried to solve the problem<sup>3)</sup> *for himself*.

3)부정사구 'try to solve the problem'은 필수적 성분으로서 Pollard & Sag(1987, 1994)에 따르면 의미적 정보의 일부로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행위자(agent), 수동자(patient), 경험자(experiencer)등의 역할로 정의되지 않더라도 논항역할(arg-role)을 하는 성분이다. 이 부정사구는 명사구가 아닌 다른 필수적 성분이므로 논항역할을 나타내며, 이 성분은 그 내부에 자신의 논항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문장의 논항 구조를 나타낼 때 ARG-ST의 값이 계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하위범주화된 성분만이 논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가정하자. 그러면 (33)의 예들은 모두 주어로 쓰인 명사구 하나만을 논항으로 가지게 된다. 이텔릭체로 나타낸 부분은 수의적 성분이므로 당연히 (33)의 각 어휘핵어의 논항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33)에서 수의적 성분 내에 들어있는 영어의 재귀대명사와 각 문장의 주어가 묶이는 이 현상을 지금까지 가정한 ARG-ST에 의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타당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수의적 성분도 논항의 일부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다.<sup>4)</sup> Pollard & Sag(1987: 132-134)은 자세한 논의를 제공하지 않으나 위에 말한 수의적 성분도 수의적 논항(optional argument)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부사류 내부에 들어있는 지시적 NP를 어휘핵어의 논항의 일부로 일단 들여오면, 예컨대 (32)의 '[자기;가의 방에]'의 '자기'를 ARG-ST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 지시적 NP와 공지시 관계 여부를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보여주는 결속 현상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을 수용하고 (32)의 결속 현상을 살펴보자. (32a)는 (34a)와 (34b)와 같이 그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32)의 수의적 성분은 하위절이나 상위절의 어느 구조에서도 수식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핵어-부가어 도식(head-adjunct schema)은 어휘핵어와 이 수의적 성분의 결합을 보장하는 도식이다. 이에 따라 (34a)는 이 수의적 성분을 하위절의 구성성분으로, (34b)는 상위절의 구성성분으로 가질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들의 논항구조를 (35a)-(35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4) a. 어머니<sub>i</sub>는 [철수<sub>j</sub>가 자기<sub>i</sub>의 방에 자다]게 한다.
- b. 어머니<sub>i</sub>는 자기<sub>i</sub>의 방에 [철수<sub>j</sub>가 자다]게 한다.

---

4) 이러한 맥락에서 Bouma, Malouf & Sag(1998, ms: 8, 28)은 논항구현(argument realization)이라는 제약과 이와 관련하여 의존구조(dependency structure, DEPS)라는 자질을 가정하여 의존성분 구현(dependent realization)이라는 제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제약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는 이러한 수의적 성분인 부사류와 전치사구 등과 같은 의존성분이 동사의 사실상의 보어로 나타나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보어가 어휘핵어의 논항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논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35) a. -게 하다: [ARG-ST <NP<sub>i</sub>(어머니),  
S(자기<sub>j</sub>의 방에 철수<sub>j</sub>가 자다)>]  
자다: [ARG-ST <NP<sub>i</sub>(철수), NP(자기<sub>j</sub>의 방)>]  
b. -게 하다: [ARG-ST <NP<sub>i</sub>(어머니), NP(자기<sub>j</sub>의 방),  
S(철수<sub>j</sub>가 자다)>]  
자다: [ARG-ST <NP<sub>i</sub>(철수)>]

이 두 가지 다른 논항구조에서 '자기'는 자신이 들어있는 논항구조상에서 논항주어와 묶이게 되어 결속과 관련하여 주어진 문장 (32a)가 지표 *i*와 *j*로 달리 나타낸 두 가지 의미를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수의적 성분이 상위절의 구성성분이거나 하위절의 구성성분이라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ARG-ST의 일부로 도입함으로써 수의적 성분의 결속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32b)도 수의적 성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32a)와 유사하다. (32b)는 수의적 성분이 논항으로 도입되면 (36)과 같은 ARG-ST를 가진다.

- (36) 만나다: [ARG-ST <NP<sub>i</sub>(=철수), NP<sub>j</sub>(=영호),  
S(=자기<sub>j</sub>가 광주에 있을 때)>]  
있다: [ARG-ST <NP<sub>i</sub>(=자기), NP(=광주)>]

'만나다'는 세 개의 논항을 가지며, '자기'는 수의적 성분의 내부에 들어 있으나 '자기'의 결속 제약이 논항주어와 '자기'가 공지표되도록 보장하므로 의도된 해석을 얻어낼 수 있다. 이는 수의적 성분을 논항의 일부로 도입한 결과로 가능한 것이다.

이제 복합문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원거리 결속이 현재의 ARG-ST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i)의 문제로 돌아가자.

- (37) a. 사람이 {간다. 길을 간다.}  
b. 아이들이 방에서 {논다, 윗을 논다.}

(37)의 어휘해어들은 동일한 어형(word form)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된다. 그래서 전자는 [ARG-ST <I NP>]를, 후자는

[ARG-ST <[1]NP,[2]NP>]라는 자질구조를 가진다. 이는 어휘핵어의 논항의 수요가 어휘기호의 어형이 아니라 어휘핵어가 나타내는 의미적 관계(semantic relation)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다.

- (38) a. 공부하다 → a'. 공부할 하다  
 b. 일하다 → b'. 일을 하다

(38a)-(38b)는 명사와 경동사(light verb) '-하다'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동사이다. (38a')-(38b')는 경동사는 결합하기 이전의 명사를 논항으로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어의 동사가 자신의 내부에 논항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일한 상황이 사역동사의 경우에도 생겨난다.

- (39) a. 공부시키다 → a'. 공부할 시키다  
 b. 일시키다 → b'. 일을 시키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으로 본래의 논항을 가진 동사들이 (38a,b)와 (39a,b)처럼 새로운 동사를 만들면 이들은 새로운 어휘핵어로서 본래의 논항을 그 내부에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Bratt(1996)는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에 의하여 국어의 사역구문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어휘기호의 ARG-ST가 단순히 어휘핵어와 표면적 구조에서 통사적 필수 성분인 NP만을 논항으로 가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자질 ARG-ST의 문법적 성격에 대하여 지난 해 여름에 핵어문법 학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그 초점의 하나는 어휘기호의 수준에서 항가자질의 값이 ARG-ST의 값이 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자질이 핵자질(head feature)의 일부로서 어휘핵어로부터 구절기호로 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의 타당성은 언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아직 합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ARG-ST에 대한 이러한 탐색적 논의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ARG-ST가 어휘핵어가 가진 정보의 일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의 결속을 기술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확장을 시도한다.

자질 ARG-ST의 값에 내재된 문제를 감안하고 지금까지의 '자기'의 결

속에 대한 논의의 바탕으로 결속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논항구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 (40) a. 영수<sub>i</sub>는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  
 b. 미워하다: [ARG-ST <NP<sub>i</sub>(영수), NP<sub>i</sub>(자기)>]

(40b)의 어휘핵어는 두 개의 하위범주화된 성분을 논항으로 가진다. 이 논항구조에 '자기'의 결속 제약이 적용되어 논항주어인 '영수'와 '자기'가 공지표되면 (40a)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어휘핵어의 의무적 성분만을 논항으로 취한다는 견해만으로 단문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결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하위절과 상위절로 이루어진 복합문은 단문의 경우와 다르게 두 개 이상의 어휘핵어를 가지므로 두 개 이상의 ARG-ST를 가진다. (41a)는 두 개의 어휘핵어를 가진 복합문이다. 이 어휘핵어들은 각각 고유의 ARG-ST를 가진다. (41b)에서 '믿다'의 ARG-ST는 주어인 NP<sub>i</sub>(철수)와 하위절인 S를 논항으로 취한다.

- (41) a. 철수<sub>i</sub>는 영수<sub>j</sub>가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b. 믿다: [ARG-ST <NP<sub>i</sub>(철수), S(영수<sub>j</sub>가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  
 미워하다: [ARG-ST <NP<sub>j</sub>(영수), NP<sub>i</sub>(자기)>]

(41a)의 두 가지 해석(reading) 가운데 '자기'가 하위절의 논항주어인 NP<sub>j</sub> 즉 '영수'와 묶이는 경우는 이미 제시한 제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기'가 상위절의 주어인 '철수'와 묶이는 해석은 '믿다'의 ARG-ST 안에 '자기'가 논항으로 들어있지 않으므로 결속 제약이 적용될 수 없다. 자연히 그에 따른 해석은 언어낼 길이 없다. 만일 이보다 더 많은 어휘핵어를 가진 복합문의 논항구조로 고려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한 문장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어휘핵어가 들어 있어서 이들의 논항구조를 별도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ARG-ST의 값으로 들어있는 NP들이 서로 어떤 지시적 의존관계를 가지더라도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 예컨대 (41b)와 같은 값을 가지는 ARG-ST에서 상위절의 어휘핵어는 논항주어 NP를 최초의 요소,

논항 S를 두 번째 요소로 가진다. 이 논항 S는 NP인 논항과 다르게 자신의 어휘핵어를 가지므로 고유의 ARG-ST를 가진다. 이 ARG-ST의 값으로 나타난 NP '자기'가 상위절의 논항주어인 NP와 지시적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결속 제약은 그 결속영역을 상위절이나 하위절을 불문하고 이들의 어휘핵어가 가진 ARG-ST의 값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적 의존관계의 성립을 기술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자기'의 결속 제약을 다르게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약이 '자기'의 논항주어 지향성이라는 현상을 보장하는 기제이며, 이를 수정하는 작업은 현재의 핵어문법의 자질구조의 체계를 크게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의 제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문장이 그 내부에 하나 이상의 하위절을 포함하는 그런 유형의 복합문이라면 각 어휘핵어들이 가지는 ARG-ST의 값을 상위절의 어휘핵어의 ARG-ST의 값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복합문의 전체의 논항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논항이 절의 한계를 넘어서 지시적 의존관계를 가지는 현상을 쉽게 언급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하위절의 ARG-ST의 값을 상위절의 어휘핵어의 ARG-ST의 값으로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위절의 어휘핵어의 ARG-ST의 값을 차례로 상위절의 어휘핵어의 논항인 S를 대치하면 된다. 그 이유는 첫째 핵어문법은 어휘핵어만이 자질 ARG-ST를 가지도록 요구하므로 다른 자질의 값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논항 S는 비록 논항이기는 하지만 지시적 NP가 아니므로 지시적 의존관계를 언급할 수 있는 문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는 결속이론을 전개하는 자리인 ARG-ST의 값으로 적절하지 못한 논항인 것이다. 셋째로 상위절의 논항 S는 자체의 ARG-ST를 가지므로 이 ARG-ST가 논항 S를 대치하면 ARG-ST의 값이 지시적 NP로 채워져 이들의 지시적 의존 관계를 쉽게 언급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ARG-ST 값의 대치는 사실상 두 개(혹은 그 이상)의 ARG-ST의 값을 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개체의 합은 집합의 개념을 이용한다. 그러나 순서가 의미를 가진 논항통어의 관계가 성립하는 ARG-ST의 값은 단순한 개체의 합과는 달리 순서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와 B라는 두 어휘핵어의 ARG-ST의 합은 다음(42b)와 같은 자질 구조로 나타난다.

- (42) a. A: [ARG-ST <[1]NP, S>]  
 B: [ARG-ST <[2]NP, [3]NP>]  
 b. AUB: [ARG-ST <[1]NP, <[2]NP, [3]NP>>]

(42b)의 자질구조는 계층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질구조는 핵어문법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Manning & Sag(1998)은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삽입논항(embedding argument)이라는 표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RG-ST의 값을 계층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구성성분의 선형순서를 다루기 위하여 Reape(1994)가 제시한 변역의 합(domain union)을 정의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43) 논항의 합(argument union)

상위절의 어휘핵어가 하위절인 논항 S를 가지면 하위절의 어휘핵어의 ARG-ST의 값인 논항들은 그 순서를 유지한 채 논항 S를 대치한다.

논항의 합은 하위절의 ARG-ST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시적 의존관계를 독립적으로 언급할 수 있고, 하위절과 상위절의 ARG-ST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41b)로 돌아가자. 지금까지의 논의물 따라 (41a)의 상위절의 어휘핵어 '미워하다'가 가질 수 있는 논항구조는 다음과 같아진다.

- (41) a. 철수<sub>i</sub>는 영수<sub>j</sub>가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고 믿는다.  
 b. 믿다: [ARG-ST <NP<sub>i</sub>(철수), S(영수<sub>j</sub>가 자기<sub>i</sub>를 미워한다)>]  
 미워하다: [ARG-ST <NP<sub>i</sub>(영수), NP<sub>i</sub>(자기)>]

(44) (41b)의 논항의 합

믿다: [ARG-ST <NP<sub>i</sub>(철수), <NP<sub>j</sub>(영수), NP<sub>i</sub>(자기)>>]

(44)의 ARG-ST는 하위절의 어휘핵어의 ARG-ST의 값인 논항 S의 자리를 대치한 것이다. 이 값은 계층적 나열이 된다. 이 상태에서 ARG-ST의 값은 최초의 논항주어 NP<sub>i</sub>(철수)와 두 번째 논항주어 NP<sub>j</sub>(영수)를 가진다. '자기'의 결속 제약은 최초의 논항주어와 두 번째 논항주어와 공지표되

는 것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본래 (41a)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

(41a)는 AAP에 의하여 원거리 결속이나 국부적 결속을 차단할 수 없는 예이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두 가지 의미해석은 화용적 요인인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자기'가 '영수'와 공지시 관계에 있다면 '자기'는 지표 j에 의하여 논항주어인 NP(영수)와 묶이고, '자기'가 '철수'와 공지시에 관계에 있다면 논항주어인 NP(철수)와 묶이게 된다. 이로서 '자기'를 논항주어와 공지표되도록 제약물 가하는 결속 제약은 (41a)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45) a. 영수<sub>i</sub>는 철수<sub>j</sub>에게 자기<sub>i</sub>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b. 말하다: [ARG-ST <NP<sub>i</sub>(영수), NP<sub>j</sub>(철수),  
           S(자기<sub>i</sub>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좋다: [ARG-ST <NP(자기<sub>i</sub>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하다: [ARG-ST <NP<sub>i</sub>(자기), NP(문제)>]  
 c. 논항의 합  
       말하다: [ARG-ST <NP<sub>i</sub>(영수), NP<sub>j</sub>(철수), <NP<sub>i</sub>(자기), NP(문제)>>]

(45)는 세 개의 ARG-ST를 가진다. 논항의 합은 (45b)에 적용되어 상위 절의 어휘핵어로 하여금 (45c)와 같은 ARG-ST를 갖도록 한다. 여기에 값으로 나열된 새로운 논항구조의 값에 결속 제약이 적용된다. 그러면 '자기'는 최초의 논항주어인 NP(영수)와 묶이게 된다. 이처럼 논항의 합은 논항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미 제시한 복합문의 내부에 들어 있는 '자기'와 관련하여 그 제약을 적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는 복잡할 수 있는 ARG-ST 값을 결정하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 제약 하나만으로 결속이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질 ARG-ST는 결속이론을 전개하는 자리로 그 위상이 확실하게 매겨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화자의 발화 의도는 '자기'와 묶이는 지시적 NP를 결정한다. (45)에서 '자기'와 여격명사구인 '철수'의 공지시 관계가 화자의 발화 의도라면 그에 따라 '자기'는 논항주어와 묶이어야 한다는 결속 제약을 무효화(override)하고 이 여격명사구와 함께 묶이게 된다. 이 부분의 논의와 형식화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진다.

## 5. 결론

이 글은 국어 '자기'의 통사적 결속 현상을 핵어문법의 ARG-ST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통상적으로 영어의 재귀대명사와 동일한 조용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화용적 요인에 의한 '자기'가 비주어와 동일지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논항주어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 '자기'의 결속 제약으로 나타내었다.

결속이론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자질 ARG-ST의 구절기호로의 투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자질을 어휘 핵어의 항가범주인 지시적 명사구로 구성된 어휘기호 수준의 정보로 고정한다면 '자기'의 결속 현상을 원천적으로 다룰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논항의 합이라는 새로운 제약을 제시하여 복합문에서 '자기'의 원거리 결속 현상을 기술하였다.

수의적 성분의 논항적 지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법 기술의 어느 수준에서는 논항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논항의 일부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로 수의적 성분 혹은 수의적 성분의 일부로 쓰인 '자기'를 ARG-ST의 일부로 도입하여 '자기'의 결속 현상을 적절하게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결속 현상을 완벽하게 기술한 것은 아니다. 상당한 정도로 '자기'의 지시의존적 NP를 결정하는 화용적 요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문법의 하나인 핵어문법의 틀 안에서 통사-의미적 상면성(interface)을 유지하도록 이를 형식화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향후의 남겨진 과제이다.

## References

- 김광희. 1997. 국어 변항범주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Alsina, Alex. 1996. *The Role of Argument Structure in Grammar*:



- Evidence from Romance*. CSLI: Stanford University.
- Bouma, G., R. Malouf & I. Sag. 1998. Satisfying Constraints on Extraction and Adjunction. Unpublished draft.
- Bratt, Elizabeth Owen. 1996.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ukari, Thomas E, and Robert D. Levine. 1995. Adjunct Extraction, *Journal of Linguistics* 31: 195-226.
- Manning, Christopher D. 1995. Valency versus Binding: On the Distinctness of Argument Structure. draft.
- Manning, Christopher D. 1997a. Argument Structure as a locus for binding theory. Unpublished draft.
- Manning, Christopher D. 1997b. *Ergativity: Argument Structure and Grammatical Relations*. Stanford: CSLI Publications.
- Manning, Christopher D. & Ivan A. Sag. 1998. Dissociations Between ARG-ST and Grammatical Relations, In Webelhuth, Gert, Jean-Pierre Koenig & Andreas Kathol (eds.) *Lexical and Constructional Aspects of Linguistic Explanation*, CSLI, Stanford, 63-78.
- Manning, C., I. Sag and M. Iida. 1997. The Lexical Integrity of Japanese Causatives. to appear in Robert Levine and Georgia Green (eds.) *Readings in HPS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 1*. CSLI: Lecture Notes Series 13.
- Pollard, Carl J. &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CSLI Publications.
- Pollard, Carl J. & Ping Xue. 1998a. 'Chinese Reflexive Ziji: Syntactic Reflexives vs. Nonsyntactic Reflexives,' to appear in *Journal of Asian Linguistics*.
- Pollard, Carl & Ping Xue. 1998b. 'Syntactic and Nonsyntactic Constraints on Long-Distance Reflexives.' Unpublished draft.
- Prezepiorkowsky, Adam. 1997a. On Complements and Adjuncts in Polish. Unpublished Draft.

- Prezepiorkowsky, Adam. 1997b. Quantifiers, Adjuncts as Complements, and Scope Ambiguities. Unpublished Draft.
- Prezepiorkowsky, Adam. 1998. Adjuncts as Complements: Evidence from Case Assignment. In Andreas Kathol, Jean-Pierre Koenig, & Gert Webelhuth (eds.) *Lexical and Constructional Aspects of Linguistic Explanation*. CSLI Publications. 231-245
- Reape, Michael. 1994. Domain Union and Word Order Variation in German. In John Nerbonne, Klaus Netter, & Carl Pollard (eds). *Germa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Lecture Note Series. CSLI, Stanford, 151-197.
- Webelhuth, Gert. 1998. Causatives and the Nature of Argument Structure. Unpublished draft
- Xue, Ping, Carl J. Pollard and Ivan Sag. 1994. 'A New Perspective on Chinese Reflexive *Ziji*,' in Proceedings of the 13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CSLI Publications, Stanford University. 432-447.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hpark@chonnam.ac.kr  
팩스: +82-62-530-3159